

개화사상 근간 무불 스님 등 개화승이 이끌어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대회서 진관 스님 '무불 스님의 생애와 사상' 첫 조명

조선 500여 년은 역불의 시대다. 오랜 억압에 불교는 산중불교로 위축됐지만 의침이 있을 때면 승병으로 호국불교의 기치를 드날렸다. 조선 후기 초의 스님 등은 여러 유학자들과 교류하며 불법의 가치를 알렸다.

이런 가운데 쇠국과 개화가 대립하며 갈등하던 조선 말기, 개화승으로 분류되는 무불 스님 등이 개화파에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며, 조선말 개화사상의 근간을 이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관 스님(불교인권위원장, 동국대 석학과 박사과정)은 6월 20일 제86차 보조사상연구원 정기 월례 학술대회에서 주제발표 '개화승 무불 연구'를 통해 무불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처음으로 조명했다.

무불 스님(?~1884, 속명 탁정식)은 백담사 강사 출신으로 건봉사 만일염불회의 미타염불사상에서 영향을 받아 개화사상을 갖게 된 개화승이다. 당시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와 교류했으나 부실한 자료로 생몰연대조차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진관 스님은 "무불과 이동인 등 개화파 승려들이 개화파들에게 영향을 줬고 개화파들은 불교의 정신으로 조선을 바르게 개혁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개화사상이 불교계에서 태동한 이유는 유교적 치국이념이 와해되면서 소외받던 불교가 새롭게 인식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서학이 전래되면서 초래한 가치 체계의 변화에 유학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족적인 색채가 강하고 사회적 평등이념을 담은 불교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진관 스님은 "인조 이후 승려의 도성출입이 금지됐다. 불심이 지극했던 정조 대왕 때도 안되던 도성 출입이 고종 때부터 가능했던 것은 개화승의 역할이 남달랐기 때문"이라 강조했다.

무불 스님 등 개화승의 활약은 개화파였던 재가불자의 활약으로 이어졌다. 스님은 "무불과 이동인은 승려



6월 20일 보조사상연구원이 개최한 월례발표회에서 '개화승 무불 연구'를 발표한 진관 스님(왼쪽에서 두 번째).

로서 개화사상의 실천에 뛰어 들었다"며 "개화사상의 시조로 일컫는 오경석, 유대치 등에게 불교사상은 평등과 민권의 이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개화파의 대표주자였던 김옥균 역시 불교의 평등사상을 수용한 재가불자였다.

진관 스님은 "김옥균의 불교적 관심은 유대치의 권유로 시작됐다"며 "김옥균은 건봉사 만일회의 염불결사 정신을 전승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어 스님은 "1881년 설해져 1908년 회향한 제4회 건봉사 만일

염불결사는 사부대중이 하나로 삼는 사회적 공동체를 건설하려는 자각의 결사인 동시에 불교의 바른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한 운동"이라고 설명했다.

건봉사 만일염불결사는 신라 경덕왕 17년(758) 건봉사 건경과 함께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조선 순조 2년(1802)과 철종 2년(1851) 제 2, 3회 결사가 행해졌다.

진관 스님은 무불 스님과 함께 이동인에게도 주목했다. 이동인은 일본 개화사상에 관심을 갖고 여러 차례 일본에 건너가 개화에 필요한 서적들을 가져온 인물이다.

스님은 "이동인이 일본 동본원사에서 정토진종의 승려가 됐다는 설이 있으나 한국과 일본 어디에서도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수차례 일본에 밀항해 개화에 필요한 책들을 유대치 김옥균 박영효 등 개화파에게 전달했던 것만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진관 스님은 "무불 스님을 비롯해 이동인 등 개화승의 출현으로 고종시대 배불정책이 완화됐을 뿐만 아니라 개화파가 불교를 중심으로 계몽됐다"면서 "개화파의 지도자로 김옥균 등과 뜻을 함께 했던 무불의 가르침은 만해 한용운 등에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조명제 신라대 교수는 "조선 후기 송광사의 전적 간행과 사상적 경향"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조선 전기 관을 중심으로 간행된 불서는 교학적으로 중요한 경전과 주석서가 대부분이었다"면서 "후기에 이르러서는 사찰을 중심으로 신앙·의식과 관련한 불서가 주류를 이뤘다"고 말했다.

조종섭 기자

불교의식구 정병 한 자리에

국립중앙박물관 10월 11일까지 '정병과 관음신앙' 전

정병(淨瓶)은 부처와 보살에 공양할 물을 담은 물병이다. 관세음보살이 든 정병에는 갈로수가 담겨 있어 그 물로 증생의 고통과 갈등을 해소해 주고, 무주고혼을 천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대세지보살의 화관에도 새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미륵보살 제석천 등의 지물로도 나타난 불교의식구 정병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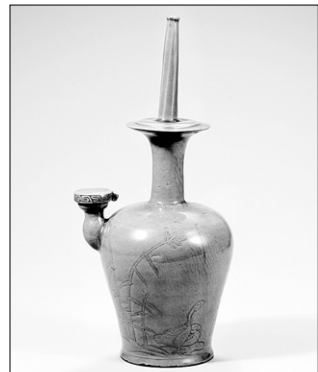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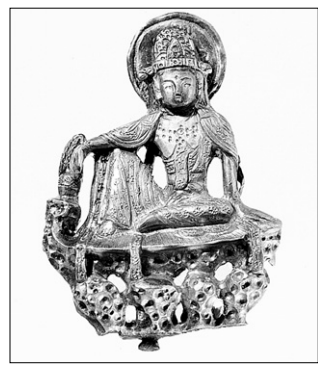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은 6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미술관 II 백자실에서 테마전 '정병과 관음신앙'을 개최한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처음 고려시대 금속기와 도자기 정병이 한자리에 선보이는 행사는 '물가풍경 무늬 정병(국보 제92호)'을 비롯해 '청자 물가풍경 무늬 정병(보물 제344호)' 등 10여 점의 정병이 공개된다.

특히 정병이 어떤 과정을 거쳐 관음신앙에 수용됐는지를 짐작케 하는 '관음보살'(국보 제127호)과 2.6cm 크기의 금제 고려시대 보살상도 함께 전시된다.

정병은 중국 북송의 서경이 1123년 고려를 방문한 후 저술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 "물을 담은 주구(注口)와 물을 따르는 첨대(尖臺)로 이뤄진 독특한 형태의 물병을 '정병'이라고 한다"는 기록에서 유래한다.

조종섭 기자



국립중앙박물관 테마전 '정병과 관음신앙'에 전시 중인 물에 지니는 작은 관음보살상(위)과 물가풍경무늬 정병.

한국의 정병은 주로 고려시대에 금속기와 도자기로 만들어졌다. 대부분의 금속제 정병에는 문양이 없지만, 문양이 표현된 경우에는 고려만의 독특한 문양인 '포류수금문(蒲柳水禽文)'을 띠고 있다.

포류수금문은 버드나무가 자라늘어지니 물에서 헤엄치는 새들과 배를 탄 사람 등을 묘사한 서정적인 문양이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부 채해정 학예사는 "이번 전시는 정병이 같은 시대에 제작된 같은 기형(器形)의 공예품이 재질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표현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라며 "다양한 장식 무늬를 확대한 그래픽 자료를 통해 그동안 작품이 작거나 무늬가 뚜렷하지 않아 잘 볼 수 없었던 공예품의 섬세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시각적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를 위해 전시품 분석을 실시한 결과, '물가풍경 무늬 정병'의 주구 뚜껑과 병목 윗부분을 덮은 은제 장식에는 금도금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또 "전시품 중 신안에서 발굴된 정병은 그동안 은제로 알려졌는데, 분석 결과 은이 아니라 주석과 납의 합금이었다"고 분석했다.

조종섭 기자

“낙태야 천도재, 일본불교 수자공양서 유래”

종교문화연구원, '한국사회 죽음의례' 심포지엄서 우혜란 교수 주장

최근 천도재의 특징은 전통적인 선망조상 영가를 비롯해 낙태야 등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천도재가 봉행된다는 점이다. 특히 낙태야 천도재는 불교계 사찰과 원불교 등 신종교에서도 유행하며 죽음의례의 새로운 트렌드가 됐다.

이런 가운데 낙태야 천도재가 일본 불교의 수자공양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종교문화연구원(이사장 정진홍)은 6월 20일 경북교 인권 출판문화관에서 '최근 한국사회의 죽음의례'를 주제로 2009년 상반기 정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우혜란 외래교수는 주제발표 '천

도재의 새로운 양태: 낙태야를 위한 천도재'에서 한국 사회에서 행해지는 낙태야 천도재의 기원을 일본의 '수자공양(水子供養)'이라 밝혔다. '수자공양'은 일본불교 문화로 자연유산을 포함한 낙태야를 위한 위령제를 일컫는다.

우 외래교수는 "낙태야 천도재에 불교계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5년 발간된 석묘가 스님의 <아가야 용서해다오>다. 석묘가 스님은 일본불교를 견학하면서 '수자(낙태야)'에 관한 일본서적을 번역해 여성 불자들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석묘가 스님은 책에서 참회 사경 사블 불공 지장보살모시기 등 일본

불교의 수자공양 의례를 참고해 서울 국청사에서 낙태야 천도재를 봉행했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 금강사 강자우 스님도 '태아영가 천도재'를 시작했다. 1993년 보성 대원사는 태안지장보살(胎安地藏菩薩)을 봉안하며 한국 최초 낙태전문 도량이 됐다.

서울 사천왕사 성덕 스님과 포천 구담사 지을 스님 등 비구니 스님들도 낙태야 천도재를 행하면서 의식을 정비하고 <장수멸죄경(長壽滅罪經)> <태경(胎胎經)> <아귀보응경(餓鬼報應經)> 등을 중심으로 경전적 근거를 보완해왔다.

이런 현상에 대해 우혜란 외래교수는 "다수의 일반 사찰이 경제에 재단을 조성하고 그 중앙에 대형 수자지장상(水子地藏像)을 봉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외래교수는 "현재 낙태야 천도재는 한국 불교계를 비롯해 원불교 등 신종교, 일부 가톨릭과 개신교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며 "서울 소재 사찰의 절반 정도가 낙태야 천도재를 따로 봉행할 만큼 낙태야에 대한 죽음의례가 자연스럽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의례날짜의 간격도 점점 좁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혜란 외래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낙태야 천도재가 유행하는 것은 낙태를 '살인'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불교계의 경제적 접근의 영향"이라 주장했다. 조종섭 기자

강진 청자 도공 원찰

정수사 한글사적기

강진군문화재연구원

신라 애장왕 원년(800)에 도선 국사가 창건해, 강진 청자를 만든 도공들의 절반 정도가 낙태야 천도재를 행해지고 있다"며 "서울 소재 사찰의 절반 정도가 낙태야 천도재를 따로 봉행할 만큼 낙태야에 대한 죽음의례가 자연스럽게 행해질 뿐만 아니라 의례날짜의 간격도 점점 좁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혜란 외래교수는 "한국사회에서 낙태야 천도재가 유행하는 것은 낙태를 '살인'으로 이해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불교계의 경제적 접근의 영향"이라 주장했다. 조종섭 기자

책은 양 소장이 20여 년 동안 개인 소장 자료 등을 찾아다니며 연구한 결과다. 정수사 연표와 방사, 암자 등에 관한 기록과 함께 초의 스님 정약용 김정희 등 정수사 관련 인물에 관한 내용 등이 수록됐다. 조종섭 기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 콜로키움 개최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원(소장 안성두)은 6월 24일 금강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설과 이제설의 구조적 관계(김재권 금강대 HK연구교수) △불전 속 마(魔)의 수

용을 통해서 본 중국 불교 소고(최은영 금강대 HK연구교수) △평정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소고(차상열 금강대 HK연구교수) 등이 발표됐다. (041)731-3611 조종섭 기자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 한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12차년도 해남 미항사 염불정진대회

아미타불을 부르며
밝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염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행법입니다. 아미타불을 지극정심으로 부르며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차게, 신나게, 맛있게 염불합시다』를 슬로건으로 아래와 같이 염불정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전국에 계신 염불행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일 시 : 2009. 7. 26~28 (2박3일)
- 장 소 : 딸골마을 해남 미항사
- 참가대상 :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동참비 : 서울 출발(12만원), 현지로 오실분(9만원)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사무처로 문의바랍니다.

전국염불만일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0 동산불교회관
전화 : 02) 732-1215-7
팩스 : 02) 732-1207
www.dongsanbud.net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무량광(無量光)무량수(無量壽)정토세계 /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무량광(無量光)무량수(無量壽)정토세계 / 평생염불 나무아미타불, 무량광(無量光)무량수(無量壽)정토세계

참나와의 친밀한 만남

몸 마음 영혼의 완전한 치유법!

- 전 통 활 락 법 : 최상의 에너지인 수증화(물 속의 불)로 전신을 경락을 일거에 타통한다.
- 체 절 조 절 법 : 모든 난치병의 뿌리는 뇌에 있다. 체절 조절로 뇌를 다스려 난치병 근치의 신기원을 이룬다.
- 전신골격 조정법 : 손가락 하나를 가볍게 접촉하여 참나의 기운을 나눔으로써 5분 이내에 뒤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는다.
- 전생업장소별법 : 뇌하수체에 혼승된 아뢰아식의 전생업장을 천연에너지로 강력하게 태운다.

자동 운기법! 자동 축기법!

수행의 최고 경지는 의념이 배제된 채 저절로 운기와 축기가 이루어져야 한다. 진인의 경지에 바로 진입한다.

운명의 공식! 개운의 법칙!

우주생성의 근본원리도 자타의 운명을 파악하고, 미래를 정확하게 예단하는 해안이 열린다. 사업, 취업, 결혼, 부동산매매, 주식거래, 각종 시험 등등 인생 제만사의 각종 문제들을 미리 조정하는 능력이자 된다.

영혼의 과학에 의거한 참된 영가 천도법!

영가의 상태를 직접 파악하고 직접 천도하며 결과까지 직접 확인하는 초유의 비법을 누구나 증득할 수 있다.

최강의 양택 발복법!

9등급으로 양택을 정밀하게 판정하고 기운을 조정하여 최상급의 명당으로 만든다.

완전한 깨달음! 행복한 현실창조! 아름다운 진화!

수 천년 동안 어렵었던 말로만 전해져서 긴가민가하던 진실이 누구나 실현할 수 있는 최상승법으로 현실화 됐다. (1:1 방식으로 완벽하게 전수하며 회비는 3백만원입니다.)

좁은 지면에 담지 못한 놀라운 효능!
02)511-5945/ 010-9336-2698

무효 체험신청하세소